

가치관 명료도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

지 용 근[†]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생의 가치관 명료화 정도는 상담, 진로교육 등 다양한 교육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관 명료도를 측정할 만한 도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치관 명료화 과정을 다룬 Raths, Harmin, & Simon(1966), Kirschenbaum(1973), Banks(1999)의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가치관 명료도의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여 가치관 명료도 검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치관 명료도 검사도구의 문항을 제작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의 가치관 명료화 과정 내용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방형 질문지 응답 유형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론적 모형에서 설정된 요인에 적절한 문항으로 검사문항을 제작하여, 전국에 걸쳐 19개 대학에서 학과단위를 기준으로 1280명을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가치관 명료도 검사도구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의 요인(자율성, 합리성, 개방성, 수용성, 실천성, 일관성)이 추출되었다. 가치관 명료도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아정체감 검사 및 의사결정유형 검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치관 명료도 검사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가치관 명료도가 자아정체감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r = .60$)를 나타내고 있어, 가치관 명료도 검사의 준거관련 수렴타당도는 검증되었다. 또한 가치관 명료도와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 높은 정적 상관($r = .60$)을 보여 가치관 명료도 검사의 준거관련 수렴타당도가 또한 검증되었으며, 의존적 의사결정유형과 부적 상관($r = -.40$)을 나타내 가치관 명료도 검사의 준거관련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가치관 명료도, 자아정체감, 의사결정유형

지용근은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강사로 재직중

[†] 교신저자 : 지 용 근, (463-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건영빌라 916동 303호
전화 : 031)708-7736 E-mail : cute100@hanmail.net

가치관 명료도는 가치관 명료화 정도와 같은 개념으로 가치관이 뚜렷한 정도를 의미한다. 가치관 명료화(values clarification)란 용어는 Dewey (1939)의 저서 「Theory of Valuation」을 토대로 Raths(1966)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가치관 명료화는 ‘자신에게 있어서 바람직하거나 존중할 만한 것을 분명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 명료화 정도, 즉 가치관 명료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치관 명료화 과정에 관한 여러 모형과 아울러 가치관의 구성요소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이 가치관 명료도 의미의 본질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져 가치관 명료화 과정과 가치관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가치관 명료화는 전통적인 가치관 교육의 접근방식처럼 성인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주입시키고자 하거나 성인들을 모방하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기존의 성인가치를 배우도록 하려는 방식은 비효과적이고 불합리한 접근이라고 여겨, 가치 유관적 사고(value-related thought)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개인적 가치와 전체적인 사회의 가치문제에 대해 보다 의도적이고 포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가치관 명료화 전략이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사고 감정 및 행동을 통하여 그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달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Hall & Smith, 1973).

Raths, Harmin과 Simon(1966, 1978)은 가치관 명료화를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가치관의 형성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선택하고 이를 보상하며 실행하는 3단계 7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가치 내면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입되어지는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능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율성을 전제

로 하여 이루어 져야한다는 것이다. 자율적인 가치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대해 소중함을 느낄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택된 가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타율적인 가치선택이 아닌 자율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고, 충동적인 가치선택이 아닌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여 각 대안들의 예상되는 결과와 중요성을 심사숙고하는 합리적 선택과정을 거침으로써, 선택된 가치에 대해서 보다 존중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며, 이를 반복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가치 내면화가 이루어져 가치관이 명료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Kirschenbaum(1973)은 가치관 형성의 과정을 단순한 선택·보상·실행의 단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경험의 개방, 가치선택의 기저가 되는 영역으로서의 사고과정,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의 3단계가 함께 포함되는 광역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윤점용 외, 1986). 그는 가치 내면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율적인 선택, 합리적인 선택과정을 거침으로써, 선택된 가치에 대해서 보다 존중하고 확신을 가지며, 이를 반복하여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자아개념을 강화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는 것과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새로운 대안에 개방적이 되게 하고,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자신의 가치가 고정화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 내면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Banks(1999)는 가치 탐구모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 가치와 타인의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가치갈등이 일어나는가를 결정하고, 가치대안을 인식하고, 다른 방도의 가치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들이 인식하는 가치를 선

택하는 것은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중시한다. 그는 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야 하고, 그들의 가치선택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신념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그는 가치의 선택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치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되어 가치관 명료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지금까지의 가치관 명료화에 대한 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가치관 명료화는 가치문제를 인식하고 갈등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분석한 다음, 해결 대안을 마련하고 결과를 예측하게 한다. 그리고 결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어떤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가치에 의해 행동하고 오류가 있으며 수정하여 보편적 원리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가치관의 구성요소에 대한 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Parsons와 Shils(1951)는 가치관의 구성을 개인의 느낌이나 정서 등 감정적인 상태가 작용하고 있는 정의적 요인과 개인의 생각, 지식, 이해, 신념, 이념 등이 포함되는 인지적 요인 그리고 어떠한 사태에 대한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성향과 관련한 행동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Rokeach(1973) 또한 가치관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가치관 및 태도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의 3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치관이 명료화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구성요소인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그리고 행동적 측면에서 모두 만족한 상태일 때 가치관이 명료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관이 명료화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행동해야 할 정확한

방법이나 목적상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 선택한 가치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정서적인 느낌을 가져야 하며, 또한 선택한 가치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 구성요소 및 가치관 명료화 과정에 관한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가치관 명료도는 가치관의 구성요소의 3측면을 포함한 개념으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다양한 탐색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선택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며 행동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선택한 가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며, 아울러 타인의 가치도 존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가치관을 보다 명료화하기 위하여 가치관 명료화 과정에 따른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적인 노력과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가치관 명료도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고 유관변인들을 측정하여 가치관 명료화 훈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이수룡, 1988). 이는 기존의 가치관 명료화 관련 측정도구의 대부분이 가치관 명료화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효과를 묻는 설문지 형식이거나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로 각 개인의 가치관 명료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측정도구로서는 적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가치관 명료화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적합한 검사도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직업 선택 및 독립적인 인격체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대학생에게 있어서 가치관을 뚜렷하게 하는 것은 대학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육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올바른

른 이해와 가치관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치관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가치관 혼란은 심리적 부적응의 원인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가 학교생활, 사회생활, 진로선택 및 결정상황에서 부적응 상태를 초래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가치관 명료화 정도를 측정할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다양한 상담장면에서나 가치교육을 위한 교육적 장면에서 각 개인의 가치관 명료도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치관 명료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치관 명료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가치관 명료도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아정체감 검사 및 진로의사결정 유형 검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가치관 명료도 검사의 수렴 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가치관 명료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Galinsky & Fast, 1966; Hershenson, 1967)로 이 시기에 주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른과의 동일시감, 자기 가치관, 자기 역할의 인식에서 비롯되며, 주체성의 혼란은 자신의 역할, 사회적 규준 제시의 불분명으로 보았다(Erikson, 1980). 즉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 및 자기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기에 안정된 자기의식에 이르기 위해 성적 정체감, 직업적 정체감 및 사회적 정체감이 확립되어야 하며 자신의 신념, 원칙, 사고 및 이념을 지닌 독립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

Marcia(1980, 198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체감

탐색의 위기를 경험했는가의 여부와 주어진 과업에 관여하는가 여부를 조사하여 자아정체감 성취지위 유형에 따라 가치탐색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았다. 혼미단계는 자신의 가치탐색에 무관심하여 심한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다. 조기완료단계는 부모나 주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의견에 따르는 의존적 가치지향으로 나타난다. 유예단계는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으나 다양한 가치탐색 활동을 통해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인 정체감 성취단계는 안정되고 확고한 삶의 목표, 가치, 인간관계를 갖고 있어 가치관이 뚜렷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삶의 목표와 가치를 탐색하려는 정도가 높을수록 다양한 가치 탐색활동을 통해 가치관이 보다 뚜렷해짐으로써 보다 높은 자아정체감을 성취한다고 하겠다. .

가치관 명료도와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

진로의사결정 이론은 개인은 몇 개의 선택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각 대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예측되는 결과는 개인의 특정한 가치에 의해 평가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Tiedeman과 O'Hara(1963)는 진로발달단계를 예상기와 적응기로 구분하여, 예상기는 잠정적인 결정의 단계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해 보며, 가치관과 목표 등을 고려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며, 의사결정을 신중히 분석·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천기는 잠정적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으로 수용적 자세로 새로운 상황에 임한 후에 일단 인정을 받게 되며 개인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강력하게

드러내며, 조직의 요구와 자신의 욕구간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원만하게 생활을 해나간다고 보았다. Gelatt(1962)는 직업선택과 발달의 과정을 의사결정의 순환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진로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게 된다고 보았다(김충기, 2000). 이러한 의사결정 이론의 기본가정 속에는 자신의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직업적 대안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와 그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고, 또한 각 대안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로의사결정이론은 가치관이 진로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Slocum, 1965; Herr, 1970) 있으며, 진로의사결정을 가치관과 목표 등을 고려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신중히 분석·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Tiedeman & O'Hara, 1963)으로 보고, 의사결정의 순환과정을 통하여 직업선택과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해질수록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을수록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먼저 지역을 고려한 표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행정구역 구분인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의 7개 지역으로 전국을 나누었다. 그리고 지역별 학생

수와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 6개 대학, 경기 3개 대학, 강원 2개 대학, 충청 3개 대학, 전라 2개 대학, 경상 2개 대학, 제주 1개 대학(총 19개 대학)을 대상 대학으로 정하고 각 대학의 전공학과 단위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연구대상자에게 총 15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 1375부(91.6%)가 회수되었다. 자료처리 과정에서 무성의한 질문지 95부를 제외한 1280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도구

가치관 명료도 검사

가치관 명료도 검사는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검사도구로써 가치관 명료화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견해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가치관 명료도의 이론적 모형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요인에 적절한 문항을 제작하여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치관 명료도 검사는 6 요인(자율성, 합리성, 개방성, 수용성, 실천성, 일관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총 45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다'가 2점, '그렇다'가 3점, '아주 그렇다'가 4점으로 4점 척도법을 채택하였다.

자아정체감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정체감의 척도는 서봉연(1974)이 제작한 자아정체감 검사를 박아칭(1984)이 개편한 것이다. 이 검사는 우리나라 중·고 및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된 검사로서 총 8개의 하위요인으로 요인별 각 6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전 신뢰도검사에서 독특성 요인의 신뢰도가 .40이하로 낮게 나타나 독특성 요인(6문항)을 제외하고 7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42 문항을 사용하

였고, 각 문항은 4점 척도법을 채택하였다. 본 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산출한 Cronbach α 는 안정성(.54), 목표지향성(.75), 자기수용(.63), 자기주장(.53), 자기존재인식(.75), 대인관계(.59)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 검사는 .82의 신뢰도를 보였다.

의사결정유형 검사

Tiedeman과 O'Hara(1963)의 진로결정모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1984년에 Harren이 처음 고안해 연구·수정한 「진로 결정의 척도(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유형 검사를 우리 한국문화에 알맞도록 전면적인 검사도구의 수정작업을 거쳐 제작한 고향자(1992)의 의사결정유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의사결정유형을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10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출한 Cronbach α 는 합리적 유형(.82), 직관적 유형(.80), 의존적 유형(.84)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첫째, 가치관 명료도 검사도구의 적절한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추출된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교회전 방법인 varimax 기준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둘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확정된 가치관 명료도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와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가치관 명료도 검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가치관 명료도와 자아정체감 및 의사결정유형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가치관 명료도 검사의 요인구조

가치관 명료도의 이론적 모형 설정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Rath(1966), Kirschenbaum(1973), Banks(1999)의 가치관 명료화 과정 모형을 분석하였다. 영역 및 요인분류는 넓은 범위의 영역을 분류하고 다시 세분해서 요인분류를 실시하였다.

영역분류는 가치관 구성요소 분류기준(Parsons & Shils, 1951; Rokeach, 1973)에 따라 인지, 정의, 행동 영역으로 나누었다. Rath(1966)의 선택단계를 인지영역으로, 보상단계를 정의영역으로, 그리고 실행단계를 행동영역으로 보았다. 그리고 Kirschenbaum(1973)의 사고단계를 인지영역으로, 느낌단계를 의사소통단계를 정의영역으로, 행위단계를 행동영역으로 보았다.

하위요인은 인지, 정의, 행동의 3개 영역에서 내용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명명(命名)하였다. Rath의 모형에서 '자유로운 선택'은 가치의 자율적인 선택 과정이므로 '자율성'으로, '여러 대안으로부터 선택'과 '결과를 심사숙고한 후에 선택'은 합리적인 가치선택의 과정이므로 '합리성'으로, '선택한 것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함'과 '필요하면 선택한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확인'은 가치선택을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타인에게 드러내 놓는 것으로 '개방성'으로, '선택한 가치를 행동에 옮김'은 선택한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실천성'으로, '선택한 가치를 생활양식으로서 일관성 있게 반복'은 선택한 가치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반복하는 것으로 '일관성'으로 하였다. 그리고 Kirschenbaum의 '의사소통'의 단계를 '수용성'으로 명명(命名)하였다. 따라서 인지영역의 내용은 자율성, 합리성의 2개 요인으로, 정서영역의

내용은 개방성, 수용성의 2개 요인으로, 그리고 행동영역의 내용은 실천성, 일관성의 2개 요인으로 나누어져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치관 명료도의 이론적 모형에 따른 각각의 요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율성: 가치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결정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 (2) 합리성: 가능한 많은 대안을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 수집 및 계획을 수립한 후 각 대안의 결과를 신중히 고려한 후 선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 (3) 개방성: 가치를 선택·결정한 것에 대해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확신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 (4) 수용성: 타인의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아울러 타인을 배려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 (5) 실천성: 선택한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 (6) 일관성: 일관된 가치를 적용하여, 한번 선택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검사 문항 제작 및 내용 타당도 검증

문항 제작에 앞서 설정된 가치관 명료도 검사의 6개 하위요인 구분이 가치관 명료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 54명을 대상으로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의 특징을 5가지 이상 쓰시오’라는 질문지를 자유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내용을 분류해 본 결과, 합리적인 일 처리 방식, 신중한 판단, 분명한 자기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존중, 리더십, 과업지향적인 태도, 일관적인 생활태도, 적극적인 사고, 자신감, 자율적인 생활태도로 분류되어, 설

정한 요인구분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치관 명료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정의에 적절한 내용의 문항을 요인별로 25문항씩 총 150문항의 예비검사문항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한 22명의 전문가 집단에게 각 문항의 내용 타당 여부를 평정하도록 하여, 전문가 2명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린 문항은 내용타당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44 문항이 탈락되어 최종 결정된 예비문항은 총 106 문항으로 결정되었다.

1차 가치관 명료도 검사도구의 타당화 작업을 위하여 2개 대학 25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문항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문항의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도록 지정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초기 고유치와 Scree Plot을 검토하였다. 주성분분석 결과 1.0이 넘는 고유치를 가진 요인은 모두 27개로서, 총 변량의 68.439%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Scree Plot을 분석한 결과 6번째 요인부터는 고유치가 비교적 평균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예비문항 검사에서 구인되어진 요인은 5개라는 결론을 내렸다.

추출된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교회전 방법 중 varimax 기준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하였다. 직교회전 후 구인되어진 5번째 요인까지의 요인행렬 중에서 요인 적재치가 .400 이상인 것을 선택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문항 요인분석 결과 1요인(합리성) 15문항, 2요인(실천성) 12문항, 3요인(일관성) 11문항, 4요인(개방성) 9문항, 5요인(수용성) 7문항으로 총 54문항이 구인되었다. 설정된 가치관 명료도의 5개 하위요인은 구인이 되었으나, 자율성 요인은 다양한 요인(6요인~10요인)으로 분리되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검사의 문항분석 및 구성타당도 검증

예비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설정된 가치관 명료도의 6요인 중에서 자율성이 구인되지 않아 추가로 문항을 제작하였다. 예비문항에서 구인되었던 54개 문항과 추가로 제작한 38개 문항을 합하여 총 92문항을 본 검사문항으로 결정하였다. 본 검사 문항의 요인별 문항구성은 자율성 15문항, 합리성 18문항, 개방성 13문항, 수용성 16문항, 실천성 17문항, 일관성 13문항이었다.

본 검사문항의 타당화 작업을 위하여 대학생 1280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여, 예비문항 요인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화 작업을 하였다. 주성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0이 넘는 고유치를 가진 요인은 모두 14개로서, 총 변량의 53.58%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Scree Plot을 분석한 결과 7번째 요인부터는 고유치가 비교적 평균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요인분석결과 1

요인(실천성) 15문항, 2요인(일관성) 13문항, 3요인(합리성) 14문항, 4요인(수용성) 13문항, 5요인(개방성) 11문항, 6요인(자율성) 6문항으로 총 72문항이 구인되었다. 이렇게 구인된 72문항의 요인별 문항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문항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거하여 그 결과 최종적으로 자율성 5문항, 합리성 8문항, 개방성 8문항, 수용성 8문항, 실천성 8문항, 일관성 8문항, 총 45문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가치관 명료도 검사의 요인구조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6개 요인들은 고유치가 2.0 이상이며, 이들 요인들이 변량의 48.02%를 설명하고 있다. 1요인(실천성)은 8개 문항으로 전체변량의 9.8%, 2요인(일관성)은 8개 문항으로 전체변량의 9.0%, 3요인(합리성)은 8개 문항으로 전체변량의 8.1%, 4요인(수용성)은 8개 문항으로 전체변량의 7.7%, 5요인(개방성)은 8개 문항으로 전체변량

표 1. 가치관 명료도 검사의 요인구조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6요인
문항번호	v47	v45	v5	v67	v51	v25
	v35	v80	v42	v78	v28	v13
	v72	v70	v41	v31	v90	v2
	v71	v58	v29	v55	v64	v38
	v82	v69	v6	v19	v91	v1
	v12	v33	v54	v44	v84	
	v24	v34	v18	v68	v40	
	v36	v10	v65	v7	v52	
고유치	4.508	4.166	3.760	3.584	3.524	2.547
설명변량	9.801	9.058	8.174	7.790	7.661	5.537
누적변량	9.801	18.858	27.032	34.823	42.483	48.020

표 2. 가치관 명료도 검사의 신뢰도

	자율성	합리성	개방성	수용성	실천성	일관성	가치관 명료도
Cronbach α	.71	.81	.82	.80	.85	.85	.91
반분신뢰도	.67	.79	.81	.77	.83	.83	.90

표 3. 가치관 명료도 요인별 상관관계

	가치관 명료도	자율성	합리성	개방성	수용성	실천성	일관성
자율성	.63						
합리성	.76	.34					
개방성	.64	.26	.42				
수용성	.50	.10	.33	.28			
실천성	.79	.41	.63	.51	.26		
일관성	.60	.51	.29	.05	.10	.28	1.00
평균	126.67	16.69	21.58	21.67	23.38	20.96	22.36
표준편차	16.00	3.16	4.02	4.33	3.66	4.20	4.80

의 7.6%, 6요인(자율성)은 5개 문항으로 전체변량의 5.5%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가치관 명료도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가치관 명료도 하위요인 각각의 반분신뢰도는 .67에서 .87까지 나타났고,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 α) 역시 .72에서 .94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가치관 명료도 검사의 반분신뢰도와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 α)가 각각 .92, .94로 나타나 본 검사도구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가치관 명료도에 대한 하위 요인으로 구분한 6개 요인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위 요인별 단순상관을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가치관 명료도와 가치관 명료도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50에서 .79까지의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가치관 명료도 하위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가치관 명료도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인 배경에서 밝힌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설정된 가치관 명료도 하위요인이 적절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또한 하위요인들 간에서는 .05 ~ .63 수준의 상관을 보여 가치관 명료도와 가치관 명료도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 .50 ~ .79보다 낮게 나타

난 점으로 보아 하위요인들의 문항 내용 구분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가치관 명료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가치관 명료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가치관 명료도와 자아정체감이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치관 명료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가치관 명료도와 자아정체감과는 .60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자아정체감 하위요인과는 .04에서 .56까지의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은 자기주장($r = .56$), 대인역할기대($r = .43$), 목표지향성($r = .42$)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은 -.13 ~ .28의 범위에서 상관을 보였으며, 정적상관을 나타내는 요인은 일관성($r = .28$), 자율성($r = .16$)이었고, 부적상관을 보이는 요인으로는 개방성($r = -.13$)이었다. 목표지향성과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는 요인은 일관성($r = .60$), 자율성($r = .46$)이었으며, 대인역할기대와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는 요인은 개방성($r = .46$), 실천성($r = .44$)이었다. 자기수용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

표 4. 가치관 명료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자율성	합리성	개방성	수용성	실천성	일관성	가치관명료도
안정성	.16**	-.07**	-.13**	-.01	-.07**	.28**	.04
목표지향성	.46**	.17**	.12**	.06*	.22**	.60**	.42**
대인역할기대	.20**	.37**	.46**	.16**	.44**	.07*	.43**
자기수용	.34**	.17**	.20**	.10**	.23**	.37**	.37**
자기주장	.55**	.31**	.39**	.08**	.46**	.39**	.56**
자기존재인식	.37**	.10**	.02	.08**	.08**	.49**	.30**
대인관계	.09**	.26**	.46**	.27**	.32**	.05	.37**
자아정체감(총점)	.54**	.30**	.33**	.17**	.38**	.57**	.60**

* $p < .05$ ** $p < .01$

타내는 요인은 자율성($r = .37$)이었고, 자기주장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요인은 자율성($r = .55$), 실천성($r = .46$)이었다. 또한 자기존재인식은 .02 ~ .49의 범위에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요인은 일관성($r = .49$)이었다. 대인관계는 .05 ~ .46의 범위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요인은 개방성($r = .46$)이었다.

이로 보아 가치관 명료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율성($r = .54$)과 일관성($r = .57$)은 자아정체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일관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관 명료도는 자기주장($r = .56$)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가치관이 뚜렷해질수록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타인에게도 원하는 바를 표명하는 당당한 자세를 보인다고 하겠다.

가치관 명료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가치관 명료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가치관 명료도 하위 요인과 자아정체감과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가치관 명료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명료도 하위요인은 자율성, 일관성, 개방성으로 자율성 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는 전체변량의 34.9%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로 일관성(8.9%), 개방성(0.5%)을 차례로 투입하면 자아정체감 전체변량의 48.8%의 설명력을 가지고

표 5. 가치관 명료도 하위요인과 자아정체감과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R	R ²	R ² 의 증가	β	t	F
자율성	.591	.349	.349	.591	26.203	686.594***
일관성	.662	.438	.089	.359	14.193	497.862***
개방성	.698	.488	.050	.234	11.179	405.782***

*** $p < .001$

있다. 이로 보아 가치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결정하며, 한 번 선택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자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가치선택과 결정을 한 사람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보다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 명료도와 의사결정유형과의 관계

가치관 명료도와 의사결정유형과의 상관관계

가치관 명료도와 의사결정유형이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치관 명료도와 의사결정유형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가치관 명료도와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는 .60의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05 유의수준에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과는 -.40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의 .23에서 .70까지의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치관 명료도 검사

의 하위요인 중 합리성($r = .70$)과 실천성($r = .50$)은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직관적 의사결정유형과는 -.43에서 .21의 범위를 보였다. 특히 일관성과 -.45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개방성과는 .21의 정적상관을 나타내 것으로 보아 일관성이 낮을수록, 개방성이 높을수록 직관적인 의사결정유형을 보인다 하겠다.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과는 -.07에서 -.55의 범위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적 상관이 높게 나타난 요인은 자율성($r = -.55$), 일관성($r = -.50$)이었다. 이는 가치관 명료도가 낮을수록, 특히 자율성과 일관성이 낮은 대학생은 의사결정을 할 때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겠다.

가치관 명료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가치관 명료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가치관 명료도 하위요인과 의사결정유형과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 표 8, 표 9와 같다.

표 7에서 보면,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표 6. 가치관 명료도와 의사결정유형과의 상관관계

	자율성	합리성	개방성	수용성	실천성	일관성	가치관명료도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26**	.70**	.34**	.32**	.50**	.23**	.60**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12**	.01	.21**	.06**	.15**	-.43**	-.04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55**	-.14**	-.09**	-.07**	-.23**	-.50**	-.40**

* $p < .05$ ** $p < .01$

표 7. 가치관 명료도 하위요인과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R	R ²	R ² 의 증가	β	t	F
합리성	.707	.500	.500	.707	35.761	1278.847***
수용성	.714	.510	.010	.106	5.109	665.045***
실천성	.717	.514	.004	.082	3.246	450.187***

*** $p < .001$

표 8. 가치관 명료도 하위요인과 직관적 의사결정유형과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R	R ²	R ² 의 증가	β	t	F
일관성	.435	.189	.189	-.435	-17.247	297.458***
실천성	.522	.272	.083	.301	12.082	238.607***
개방성	.532	.283	.011	.122	4.380	167.733***
합리성	.535	.286	.003	-.071	-2.256	127.475***

*** $p < .001$

미치는 요인은 합리성, 수용성, 실천성으로 전체 변량의 51.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합리성으로 전체변량의 50.0%를 설명하고 있고, 수용성 1.0%, 실천성 0.4%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표 8에서 보면,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관성, 실천성, 개방성, 합리성으로 전체변량의 28.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관성으로 전체 변량의 18.9%를 설명하고 있고, 실천성 8.3%, 개방성 1.1%, 합리성 0.3%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표 9에서 보면,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율성, 일관성, 합리성으로 전체 변량의 37.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율성으로 전체변량의 31.9%를 설명하고 있고, 일관성 5.2%, 합리성 0.6%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이는 가치관 명료도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며, 가치관 명료도가 낮을수록 의존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 명료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가치관 명료도와 자아정체감 및 의사결정유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가치관 명료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가치관 명료도가 자아정체감과 정적 상관관계($r = .60$)를 나타내고, 자아정체감 전체변량의 48.8%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시기에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더 명확한 개념과 강한 관심(Waterman, 1982)을 가지며, 이 시기에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 및 자기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오현수, 1999; Erikson, 1980; Marcia, 1988)하다는 연구의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들에 대해서도 보다 일관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어 자아정체감이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치관 명료도와 가

표 9. 가치관 명료도 하위요인과 의존적 의사결정유형과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R	R ²	R ² 의 증가	β	t	F
자율성	.565	.319	.319	-.565	-24.446	597.616***
일관성	.609	.371	.052	-.275	-10.294	376.349***
합리성	.614	.377	.006	.082	3.459	257.043***

*** $p < .001$

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은 자기주장으로 $r = .56$ 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가치관이 뚜렷한 대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알고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하는 주장적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주장적 행동(assertive behavior)은 ‘자기의 이익대로 행동하고 부당한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편안하게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며 타인의 권리를 방해함이 없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Albert & Emmons, 1982)’으로 ‘자기의 이익대로 행동하고’는 자율적인 가치 선택으로 자율성, ‘부당한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는 비합리적인 불안을 느끼지 않는 합리성, ‘자기를 내세우고’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개방성, ‘타인의 권리를 방해함이 없이’는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수용성,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은 실천성과 일관성에 해당되므로 가치관 명료도가 높은 대학생이 자기 주장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관성과 목적지향성은 .60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가치혼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비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반면에, 명료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은 긍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이며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성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Lockwood, 1975)는 연구에서처럼 일관된 가치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갖고 있는 일관성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목표가 무엇이며 자기의 행동 방향과 자신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목표를 지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간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가치 선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개방성은 대인역할기대($r = .46$), 대인관계($r =$

.46)에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방성은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자기 자신을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타인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즉 자기개방 또는 자기노출(self-disclosure)이라 할 수 있다. 자기개방은 타인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좀 더 깊이 있고 풍부하며, 복합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Yalom, 1985). 가치 선택과 결정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놓은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 보다 적극적이고 긴밀한 대인관계를 갖게 되며,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역할도 잘 수행한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역할 혼란이나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 놓는 자기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가치관 명료도가 자아정체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자가 제작한 가치관 명료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결과로 보아 가치관 명료도 검사의 수렴타당도를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치관 명료도와 의사결정유형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가치관 명료도와 합리적 의사결정과는 .60의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 전체변량의 51.4%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05 유의수준에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과는 -.40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의존적 의사결정 전체변량의 37.7%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가치관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진로의사결정이론(Slocum, 1965;

Herr, 1970)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치관 명료도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며, 가치관 명료도가 낮을수록 의존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치관 명료도와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 높은 정적 상관($r = .60$)을 보인 것은 가치관 명료도의 준거관련 수렴타당도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며, 의존적 의사결정유형과 부적 상관($r = -.40$)을 보인 것은 가치관 명료도의 준거관련 변별타당도를 지지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타당도를 검증한 가치관 명료도 검사를 대학생의 진로교육, 생활지도, 상담장면에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가치관 명료도 검사를 실시·활용함으로써 가치관 명료화를 위한 가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과 도출된 결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으로 후속 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가치관 명료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가치관 명료도 검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해봄으로써 상담장면에서의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치관 명료화 훈련을 할 때 가치관 명료도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집단상담의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본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참고문헌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옥, 권석만, 정남운 (2000).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척도(K-IIPI)의 개발: 요인구조 및 심리측정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53-175.

김충기 (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박아청 (1992). 청년과 아이덴티티. 교육신서 154. 서울: 배영사.

오현수 (1999). 가치명료화 과정이 충동적 사고성향에 따라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점용, 나정, 최운지 (1986).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가치관 확립 프로그램 개발연구(연구보고 RR 84-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수룡 (1988). 가치명료화훈련 유형간의 효과 비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범모 (2000). 가치관과 교육. 교육신서 1. 서울: 배영사.

정세구 (1995). 가치이론과 가치교육. 교육과학신서 14. 서울: 교육출판사.

정종진 (1998). 대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자아정체감의 이해. 학생생활연구, 24, 대구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24.

Albert, R. E., & Emmons, M. L. (1982). *Your perfect right: A guide to assertive behavior*. San Luis Obispo, CA: Impact.

Banks, J. A., & McGee Banks, C. A. (1999).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Decision-making and citizen action*(5th ed.). Menlo Park CA: Addison-Wesley Longman.

Dewey, J. (1939). *Theory of valua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life cycle*. New York, NY: Norton.

Galinsky, D. A., & Fast, S. (1966). Vocational choice

- as a focus of identity 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3, 89-93.
- Gelatt, H. B. (1962). Decision-Making :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 240-245.
- Herr, E. L. (1970). *Decision Making and Vocational Development*, Boston, MA: Houghton Mifflin.
- Hershenson, D. B. (1967). Sense of identity, occupational fit, and encultur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4(4), 319-324.
- Kirschenbaum, H. (1973). Beyond value clarification. In H. Kirschenbaum, & S. B. Simon. *Readings in values clarification*. Minneapolis, MN: Winston.
- Kirschenbaum, H. (1994). *One hundred ways to enhance values and morality in schools and youth settings*. Boston, MA: Allyn and Bacon.
- Lockwood, A. L. (1975). A critical view of values clarification. *Teachers College Record*, September, 77, 35-50.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le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NY: Wiley & Row.
- Marcia, J. E.(1988). Identity and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12, 401-410
- Parsons, T., & Shils, E. A.(1951). Values, motives and system of action, in T. Parsons, E. A. Shils(ed.),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NY: Harper and Row.
- Raths, L. E., Harmin, M., & Simon, S. B. (1966). *Values and teaching: Working with values in the classroom*.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NY: The Free.
- Slocum, W. L. (1965). Occupational Careers in Organizations: A Sociological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3, 858-866.
- Tiede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NY: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 Psychology*. 18(3). 341-358.
- Yalom, I.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3rd ed.). New York, NY: Basic.
- Zunker, V. G.(2000). *Career counseling : Applied concept of life planning*. Monterey, CA: Books/Cole.

원 고 접 수 일 : 2002. 9. 6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1. 21
게 재 결 정 일 : 2002. 12. 3

A Validational Study of the Values Clarification Inventory

Yong-Kewn Ji

KonKuk University

Despite Values Clarification being an essential psychological factor to be considered in various educational fields including counseling and career education, there have been no proper instruments for measuring i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model of Values Clarification and develop Values Clarification Inventory. For that purpose, the subjects were 1,280 college students. They were selected from 19 universities in the whole country.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on the Values Clarification Inventory, 6 factors (autonomy, rationality, openness, acceptability, practice, coherence) were extracted. This study examined the relevance of Values Clarification Inventory to Self-Identity Inventory and to Decision-Making Styles Inventory to verify the validity of Values Clarification. As a result, Values Clarification showe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Identity ($r=.60$). Also, it showe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Rational Style ($r=.60$), but a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endent Style ($r=-.40$). So, Values Clarification Inventory was estimated to have a reliable validity.

Key Words : Values Clarification, Self-Identity, Decision-Making Styles

부 록

가치관 명료도 검사

자율성

1. 중요한 결정은 하기가 힘들어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것이 편하다.
2. 내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때가 있다.
3. 중요한 결정은 나의 가치기준에 따라 내 스스로 한다.
4.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상대방에 이끌리어 가는 경우가 많다.
5. 나만의 확실한 기준이 없어 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합리성

1.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워 실천할 일들을 골똘히 생각한다.
2.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다.
3.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한다.
4.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5. 감정이나 기분에 휩싸이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한다.
6.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알고 일 처리를 한다.
7. 물건을 살 때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생각해 보고 물건을 산다.
8.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그 계획에 따라 일 처리를 한다.

개방성

1. 내가 한 방식이 좋다고 사람들에게 터놓고 말한다.
2.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옹호하고 설명한다.
3. 내가 가치롭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
4. 내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표현한다.
5.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에 대해 얘기한다.
6.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은 증거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7.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스스로없이 한다.
8.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밝힌다.

수용성

1. 남의 입장이나 처지를 잘 이해해 주는 편이다.
2.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해하려고 애쓴다.
3. 남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한다.
4.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존중하려고 한다.
5. 타인의 감정이나 느낌을 잘 이해하고 받아준다.
6.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존중한다.
7. 여러 가지 일로 사람이 찾아오지만 귀찮지 않으며, 성의껏 대한다.
8.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

실천성

1.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끈장 실천에 옮긴다.
2. 한 번 하기로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행한다.
3. 나는 결심을 하면 그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4.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은 주위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끝까지 완수한다.
5. 나는 한번 선택한 일은 장애요인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6. 나는 결심을 하면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
7. 한 번 계획한 일은 계획대로 일 처리를 한다.
8. 옳다고 판단되면 어떤 장애가 있어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다.

일관성

1. 많은 것에 관심을 보이거나 금방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린다.
2. 나는 많은 것에 흥미를 느끼나 오랫동안 가지는 못한다.
3. 관심을 두는 시간이 짧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계속하는 일이 거의 없다.
4. 나는 시작할 수는 있으나 끝까지 해내는 것 같지 않다.
5.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다.
6. 나는 지나가는 일시적인 변덕이나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하곤 한다.
7. 어떤 일을 마음먹고 행동에 옮겼을지라도 계속하기 어려우면 쉽게 중단한다.
8.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주변 상황 등에 쉽게 흔들리는 것 같다.